

# 절임 배추·김장 키트로 간편하게...김장, 포기하지 마세요

### 김장 담그는 가구 비율 63%...절임배추 구매 54%로 높아

### 롯데백화점 광주점, 버무리기만 하면 되는 김장 상품 판매

### 이마트, 수육용 삼겹살 40% 할인...이마트24 호텔김치 주문도

전국 소비자 4명 중 1명 꼴로는 올해 김장을 담그지 않고 포장김치를 사먹겠다고 응답한 조사 결과가 나왔다.

광주·전남 유통가는 김장 재료를 할인 판매하고 간단하게 김장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을 내놓는다.

10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발표 '2021년 소비자 김장 의향 및 시사점' 자료에 따르면 올해 김장을 담그지 않고 포장김치를 사먹겠다는 소비자 비중은 전년보다 2.1%포인트 증가한 26%로 나타났다.

김장을 직접 담그는 가구 소비자 비율은 63.3%로, 전년(62.0%)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지인으로부터 구매하거나 지인으로부터 무료로

받겠다는 비율은 각각 4.7%, 6.1%로 나타났다.

김장을 포기하고 포장김치를 사는 이유로는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만큼 구입이 가능해서' (47.4%)와 '김치 담그기가 번거롭거나 바빠서' (33.3%)가 주를 이뤘다. 김치를 살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맛 또는 품질' (52.7%)과 선호 브랜드 (20.3%), 원재료의 국내산 여부 (16.9%) 등이 있었다.

포장김치 구매자는 절반 가량 (45.9%)이 '인터넷 또는 TV 흡소판'이었다. 이 비율은 지난해 (42.9%)보다 3%포인트 늘었다.

온라인 구매에 이어 마트·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 (25.1%), 반찬가게 (7.9%), 도매시장 또는 전통시장 (5.9%), 인근 슈퍼·상가 등 소매점 (5.6%) 등

이 뒤를 이었다.

김장을 담그는 소비자의 김장배추 구매 유형은 절임배추 (53.8%)가 신선배추 (40.8%)보다 높았다. 신선배추와 절임배추를 모두 구매하는 비율은 5.5%였다.

호남에서 김장을 담그는 소비자들은 올해 김장 시기를 다소 늦추기로 했다.

호남지역에서 김장을 가장 많이 담그는 시기는 12월 상순으로, 61.5%의 비중을 차지했다.

11월 하순이 15.4%로 뒤를 이었고, 12월 중순 (12.8%), 11월 중순 (7.7%), 12월 하순 (2.6%) 순이었다. 지난해에는 11월 중순에 김장을 담근 소비자가 12.8%에 달했지만 올해는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12월 상순 비중은 51.3%에서 61.5%로 늘어났다.

김장을 담그기 좋은 날은 하루 평균 기온이 4도 이하거나 하루 최저 기온이 0도 이하로 유지되는 날이다. 광주의 경우 12월 11일이 김장 적정 시기다.

지역 유통가들은 김장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가구 수요를 잡기 위해 다양한 상품과 기획전을 마

련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지하 1층 '올가' 매장은 버무리기만 하면 되는 김장 상품을 내놓았다. 유기농 절임배추에 만들어진 양념소를 버무리기는 방식이다. 이외 각종 양념과 깍두기, 액젓 등을 한 곳에서 만날 수 있다.

(주)광주신세계 지하 1층 행사장에는 밑페가 가능한 사각형 용기로 유명한 '당아리' 상품이 선보여지고 있다. 오는 18일까지 운영되는 이 매장에서는 황도용기 등 인기상품을 할인가 (8개 꾸러미 19만 4000원)에 내놓는다. 대형, 중형, 소형, 종지형 등 종류가 다양하다.

전국 이마트24 편의점은 김장철을 맞아 11일부터 다음 달 15일 오전 10시까지 김치 주문을 받는다.

이마트24는 조선히otel과 손잡고 내놓은 피코크 조선히otel 포기김치 3종을 주문 판매한다. 4kg 포기김치 (3만 800원)부터 총각김치 꾸러미까지 세 가지가 마련됐다.

가까운 이마트24 매장을 찾아 주문서를 작성한 뒤 결제하면 주문일 기준 다음 주 수요일에 택배 발

송이 진행된다. 택배비는 무료다.

이마트24는 김치 구매 고객 모두에게 이마트24 모바일상품권 5000원권을 증정한다. 김장을 쉽게 담그려는 '셀프 김장족'을 위한 절임배추 (10kg·20kg)와 양념속 (5kg)도 구비했다.

지난해 이마트24가 상권별 매출 비중을 조사한 결과 오피스 (41%)와 주거 (31%) 상권이 전체 상권의 7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트는 11일부터 17일까지 김장김치와 잘 어울리는 삼겹살 고기 (100g)를 행사카드로 결제하면 40% 할인된 1488원에 판매한다.

환절기 몸보신을 위한 전복 (1kg)은 회원에게 40% 할인된 가격에 내놓는다. 민물·바다장어 (700g)도 1만원 할인 판매한다. 제주 참조기 (해동·10마리)는 기존의 반값인 5900원에 선보인다.

한편 9일 가격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물가정보가 조사해보니 4인 가족 김장비용은 전통시장을 이용하면 31만원, 대형마트에서는 35만 7000여 원이 들 것으로 나타났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겨울 간식에 군고구마·찰옥수수가 '딱' 10일 (주)광주신세계 본관 지하 1층 식품매장에서 직원들이 무안 특산물 달소고구마와 강원도 정선 찰옥수수, 군밤 등 겨울 간식을 선보이고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 “수험생 수능도시락부터 간식까지”...유통가 다양한 상품 판촉전

### 홈플러스, 도시락 최대 40% 할인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18일)을 일주일 앞두고 유통가도 수험생 가정을 위한 판촉전을 마련했다.

롯데마트 광주월드컵점은 수능날을 앞두고 보온성을 갖춘 다양한 도시락 용기를 선보이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보온 도시락과 보온병, 도시락 가방 등 여러 크기와 종류별로 갖췄다.

홈플러스는 오는 17일까지 자체적으로 내놓은 찹쌀떡, 초콜릿 등 간식을 판매한다. 보온병과 보온도시락 100여 종을 최대 40% 할인 판매하며, 핫팩과 담요 8종을 할인가에 선보인다.

선물 포장지와 종이가방 90여 종은 2개 이상 살 때 20% 할인해준다. 11일까지 행사상품을 2만 5000원 이상 구매하면 5000원 상당 상품권을 준다.

죽 전문점 본죽은 17일까지 '죽 도시락'을 사진



롯데마트 광주월드컵점 직원이 수능을 앞두고 다양한 보온 도시락 용기를 선보이고 있다. <롯데쇼핑 제공>

예약받는다.

도시락을 주문하면 수능 당일 원하는 시간대에 바로 포장해 갈 수 있다. 고객이 개인 보온 도시락

을 가져가면 된다. 지난해 수능 전날 본죽의 죽 판매량은 하루 새 52% 증가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요리 후 남는 채소 없게...1인가구 '간편 채소' 인기

### 이마트 매출 41% 증가

'바빠도 채소를 챙겨먹자'는 1인 가구 등으로부터 '간편 채소'가 인기다.

10일 광주 3개 이마트에 따르면 이들 점포의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간편 채소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7% 증가했다.

'간편 채소'로 분류되는 하루 채소 매출은 65%, 초간단 채소 46%, 스페셜 채소는 15% 증가했다. 하루 채소는 양파, 대파, 고추, 버섯, 무, 깻잎 등

평균 자주 쓰이는 20여 품목을 소포장한 제품이다. 가격은 한 봉에 990원이다.

초간단 채소는 볶음밥이나 찌개를 만들 때 유용하다. 감자·당근·양파·호박 (220g)이 한 데 묶인 '볶음밥 믹스'와 찌개용 채소 (무·당근·양파·애호박·청양고추·미니새송이·대파·홍고추 등 270g)가 각각 2580원과 2380원에 판매되고 있다.

스테이크도 간편하게 만들 수 있도록 간마늘·양송이·적양파·아스파라거스 (160g) 등 채소가 5980원에 선보여지고 있다.

초간단 채소는 재료를 각각 준비할 때보다 약 50% 저렴하며 요리 후 많이 남을 걱정을 덜 수 있어 인기가 높다.

바질, 고추, 루꼴라, 허브류 등 30여 품목의 스페셜 채소는 1680원부터 4480원까지 다양한 가격에 판매된다.

확대한 이마트 채소팀장은 "하루채소나 초간단 채소는 고객의 새로운 요구를 반영한 상품"이라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부동산중개법인 한국토지부동산

강력추천! 투자가치 100% 확신!

# 다세대빌라

(북구 운암동)

- 대 지 : 364 m<sup>2</sup>
- 건 물 : 411 m<sup>2</sup>
- 층 수 : 3층
- 세대수 : 6세대
- 평 형 : 24평형

매매가 : 495,000,000원

상담 010-3733-3933